



중등 임용시험은 예정대로 11.21.(토) 시행
 - 확진자 응시 불가, 자가격리 대상자 위한 별도 시험장 확충 등 조치
 - 자가격리 대상자 검사시행 중, 금일 중 확진자 결과 통지 예정

- 중등 임용시험 노량진 학원 관련,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을 통해,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서 체육교과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응시생들 중 38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,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수험생 숫자와 명단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, 대상자 전원에게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교육부는 금일(20일) 오후 긴급히 차관 주재 시·도교육청과 긴급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협의하였으며,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.
 - 내일(21일) 예정된 중등임용시험은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정대로 시행된다.
 - 노량진 학원 이용자 정보는 보건소, 교육청 등과 공유하여, 이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, 검사 결과도 교육청, 응시생 등에 신속히 공유한다.
 - 확진자는 응시불가 조치하며, 확진자의 응시불가는 사전에 안내된 바 있다.
 - 노량진 학원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는 현장에서 음성임을 확인 받

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다.

- 자가격리 대상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별도 시험장을 추가 확충하고, 감독관 배치, 방역물품 보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.

<p>◆ 확진자 : 38명, 검사 대상자: 600여 명 ('20일 17:00기준)</p> <p>- 발생지 : ○○고시학원(동작구 노량진로) 체육실전모의고사반</p> <p>- 체육교육 응시를 준비하던 600여명의 학생들이 동일건물에 위치</p> <p>◆ 11월 21일(토) 전국 110개 시험장, 3076실에서 60,233명 응시 예정</p> <p>◆ 교육청별로 별도 시험장을 추가 마련하고, 시험 감독관, 관리자 등 추가 투입 예정</p>

- 교육부는 확진자 정보를 교육청과 공유하고, 검사 대상자들이 오늘 중에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.
- 또한, 교육부는 임용시험 이후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시험 후 시험 감독관들은 전원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며, 시험장은 방역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- ※ 추가로 확보하는 별도 시험장 등에 관한 추가 정보는 별도 제공 예정

